

# 하반기 적용 시중 노임단가 16만 3,339원, 당분간 오름세 지속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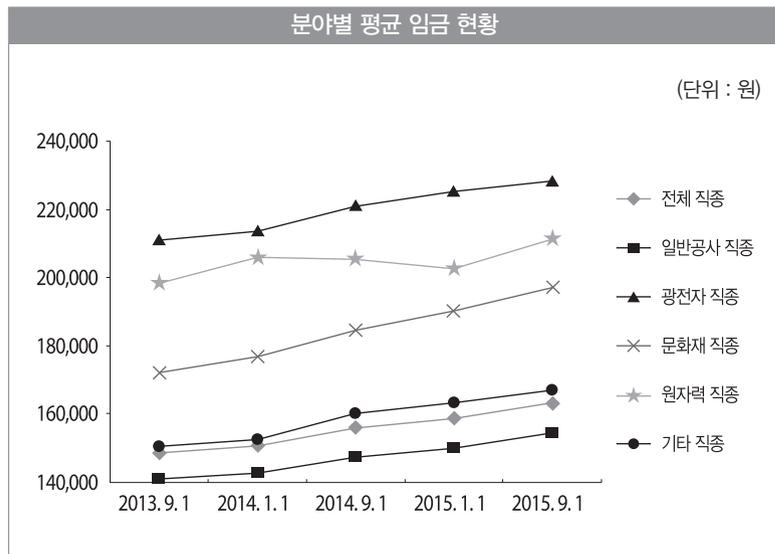
최은정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kciel21@cerik.re.kr

2015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sup>1)</sup> 결과가 지난 9월 1일 발표되었다. 건설업 임금 실태는 대한건설협회가 전국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117개 직종의 일평균 임금을 조사해 1년에 두 번(상반기, 하반기) 공표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17개 직종은 전기(2015년 1월 1일) 대비로는 3.0%, 전년 동기(2014년 9월 1일) 대비로는 4.8%가 증가한 16만 3,33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균 임금 현황



1) 임금 실태조사는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우편 조사, 인터넷 조사, 현장 조사의 방법을 통해 전국 2,0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건설 현장은 크게 일반공사 직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광전자직종(전기직종(전기공사업 등록업체 현장), 정보통신직종(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현장), 문화재직종(문화재 보수 시공업체 현장), 원자력직종(원자력공사 시공업체 현장), 기타 직종의 4개로 나뉨.

구분	직종 수	2013. 9. 1	2014. 1. 1	2014. 9. 1	2015. 1. 1	2015. 9. 1
전체 직종	117	148,380	150,664	155,796	158,590	163,339
일반공사 직종	91	140,833	142,586	147,352	149,959	154,343
광전자 직종	3	211,106	213,715	220,954	225,312	228,408
문화재 직종	12	172,081	176,705	184,513	190,064	197,308
원자력 직종	4	198,225	206,068	205,402	202,459	211,249
기타 직종	7	150,490	152,362	160,079	163,185	166,795

주 : 2010. 1. 1일자 공표 임금부터는 개정된 직종 및 직종 수(145→117개)로 조사·공표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 임금과 차이가 있음.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분야별 평균 임금 지속적으로 상승

분야별로는 전체 11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공사 직종이 전기 대비로는 2.9%, 전년 동기 대비로는 4.7%가 상승한 15만 4,343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광전자 직종은 전기 대비로는 1.4%,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가 상승한 22만 8,408원을, 문화재 직종은 전기 대비로는 3.8%, 전년 동기 대비로는 6.9% 상승한 19만 7,308원을 기록하였다. 원자력 직종은 전기 대비로는 4.3%,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상승한 21만 1,24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직종은 전기 대비 2.2%, 전년 동기 대비 4.2%가 상승한 16만 6,795원을 기록하였다.

일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송전환선전공으로 39만 2,819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배전할

선전공이 37만 3,173원, 송전전공이 35만 8,569원, 도편수가 29만 2,427원, 특고압케이블전공이 26만 975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일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직종은 보통 인부로 8만 9,566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일반기계운전사가 9만 909원, 초급품질관리원이 9만 4545원, 일력운반공이 9만 8,941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안전 위험도가 높고 기술력을 요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반면, 일당이 낮은 직종은 높은 기술력을 요하지 않고 주로 단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 신규 기능인력 유입 감소와 숙련공 부족으로 임금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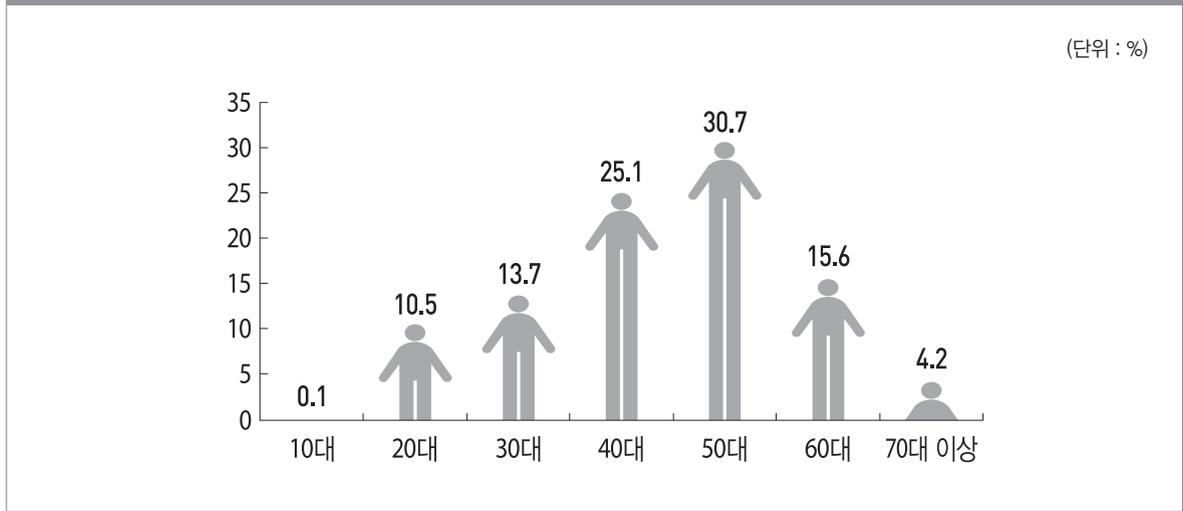
시중 노임단가는 앞의 분야별

평균 임금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장에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어들고 숙련공 부족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데이터 베이스(2014년 7월 기준)상 건설 기능인력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40대 이상이 전체의 75.6%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전 연령대 중 50대가 30.7%로 가장 높았다. 이는 건설 현장에 젊은 신규 인력 유입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수급 상황을 조사한 심규범(2014)의 연구에서도 숙련 인력(기능공)은 응답자의 77.8%가, 비숙련 인력(일반공, 조공)은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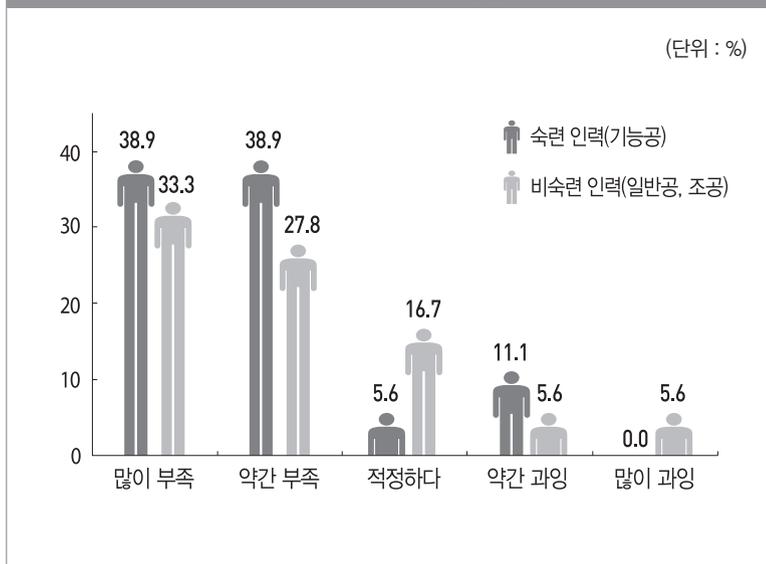
건설근로자공제회 데이터 베이스의 연령대별 근로자 수 분포



주: 본 그래프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데이터 베이스상 2005~2013년까지 117개 직종에 해당하는 건설 기능인력(267만 783명)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비중을 구한 것임.  
 자료: 건설기술인협회(2014),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실시 연구.

답자의 61.1%가 부족하다고 답해 기능 인력뿐만 아니라 건설업체 입장에서 현장 인력 부족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국인 근로자 수급 상황



자료: 1) 심규범, 건설현장 고용허가제 관련 설문조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  
 2) 심규범,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

당분간 노임단가 상승 지속될 듯

최근 주택시장의 호황에 따른 공사 물량의 증가와 정부의 하반기 SOC 추경 예산 집행으로 건설 물량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 현장의 직종별 노임단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설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가 단시간 안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장의 신규 인력 진입이 활성화되고 현장 인력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CERIK